

보도시점 2024. 7. 15.(월) (배포 후 즉시) 배포 2024. 7. 15.(월)

환경부 차관 “연이은 장맛비로 올라간 하천수위 고려… 후속 강우 철저히 대비”

- 하천, 상하수도 등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응급조치 및 시설복구 조속 추진
- 신속한 홍수특보 발령, 후속 강수에 대비한 댐 홍수조절용량 확보 등 대비 철저히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5일 오전 물재해종합상황실(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홍수 상황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이 참여하여 홍수피해 복구현황 및 후속 강우 대처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지난 주말(7월 13일~)에 남부지방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이은 장맛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주요 지점별 누적강수량(mm, 7월 7일 ~ 10일)

- 487.5(충남 부여), 445.5(전북 익산), 436(충남 서천), 420(충남 논산), 408(전북 군산)

환경부는 지난 집중 호우 시 일부 하천 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응급조치 및 시설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부 하천구간에서 발생한 제방 유실에 대해서는 응급 복구 중이며, 상하수관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임시 복구를 끝내고, 침수가 발생한 하수처리시설의 하수를 인근 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병입수 및 급수차를 지원하고, 이동식 세탁 차량 및 수해 폐기물 수거 지원 등 침수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7월 7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상황에서 총 96건의 홍수특보를 발령했으며, 이는 작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체 홍수특보 발령 98건과 유사하다. 특히, 올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으로 확대한 특보지점(지방하천 위주 확대)*에서 발령된 횟수는 69건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이후 강수에도 신속하게 홍수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차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 홍수특보지점 '23년 75개(국가 63, 지방 12) → '24년 223개(국가 93, 지방 130)
 ※ 7.7~10일 총 96건 홍수특보 발령(국가 36, 지방 60) : 기존 특보지점은 27건(국가 20, 지방 7), 신규 특보지점은 69건(국가 16, 지방 53) 발령

또한, 이번 집중 호우 시 대청댐, 보령댐 등 다목적댐에 물을 최대한 저장(총 18.9억㎥)하여 하류 하천의 수위 상승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 장마 소강기인 현재는 후속 강수에 대비하여 집중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수 조절용량(약 50억㎥, 7.14일 기준)을 추가로 확보했다.

각 기관으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이병화 차관은 지난 집중 호우시 경험을 토대로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을 홍수 관련 관계기관에 당부하며, 특히 이번에 피해를 입은 하천 제방, 상하수도 시설 등을 조속히 복구하고 취약지역으로 집중 점검 및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연이은 강수로 하천과 댐 수위도 올라가 있고 지반이 많이 약해진 만큼, 작은 위험요인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며, “장마철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4-201-7651)
		담당자	사무관	김태운	(044-201-7652)

